

산업자원부,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 집중 지원

올해부터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자금은 연구기관들과 투자기관들로부터 기술성·시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에 중점 지원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투자기관들은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수요자들이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뢰성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자부 부품·소재산업발전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역량강화를 위한 2000년도 부품·소재산업 추진시책을 확정했다.

부품·소재산업 통합연구단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체는 올해 15개 정도의 유망기업을 선정키 위해 2월중 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고, 4월중 5개 정도의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3/4분기까지 5개씩 추가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0여개의 핵심부품 소재 전문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된다.

또한 WTO국제규범과의 조화 및 정부 실패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는 기술성, 재무건전성,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정부는 민간의 투자자금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시제품개발 사업화 자금도 R&D(500억원), 시제품개발(2,286억원), 사업화자금(1,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지원, 병역특례요원배정 및 통합연구단 연구인력과제 등 고급기술인력 지원도 병행추진한다.

한편,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가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신뢰성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상반기중 부품·소재가 일정기간 고장없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하여, 하반기에는 유압실린더, 소형 모터, 콘덴서, PCB, 릴레이 등 5개분야에 대해 '신뢰성 보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8년후 전력수요 두배 증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영국 대 사관과 공동으로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 경험과 교

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세계 최초로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 영국 전력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시장으로 성공한 영국의 경험을 국내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반영·활용키 위한 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오영교 산자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한전연구계 학계 인사와 전력노조가 참여했고 영국측에서는 리차드 카본 상무성 무역담당 국무장관을 비롯 영국의 대표적 전력회사의 하나인 피터 휴즈 파워젠 사장 토니 미쉬 영국도이치뱅크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LG에너지와 합작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국내 전력산업에 참여한 파워젠 피터 휴즈 사장은 이날 「한·영 전력산업 전문위원회」

이후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 재입찰에 다시 참여한 것을 밝히고, 7~8년 후 현재의 두배 정도로 수요가 증가할 한국 전력산업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을 못박았다.

그러나 휴즈 사장은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해 다양한 발전원을 보유해 분산투자가 가능한 한국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매입사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를 피력, 이 경우 발전부문 지분투자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담보사업 500억으로 늘린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기술담보사업 지원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179억원보다 321억원(179%) 늘어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전의 3개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8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기술담보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기술을 평가, 그 평가액만큼 권리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97년 5월부터 시행된 기술담보사업의 대출잔고는 모두 142건에 336억원에 달하며 그간 기술집약기업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기술담보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보유기술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융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기반자금 지원 계획 일정

산업자원부는 올해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산업기반기금은 총 3,860억원으로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금이다.

이번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융자조건을 보면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기업당 20억원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이번 융자대상 기업의 선정 권한은 각 업종별 단체에서 맡게되며 신청마감 시점부터 융자사업자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 5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시설재 도입시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대출취급 기한을 현행 8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통물류 부문의 표준화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새롭게 부각돼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발굴·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기반기금 융자신청기관을 보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28개 협·단체 등이며 이들 단체는 산업구조 고도화 중 고부가가치화 관련 사업을 위해 기금융자를 신청했다.

지난해 ISO획득 83% '급증'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0)과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0) 획득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ISO9000 획득건수는 작년말 현재 1만1,533건으로 전년대비 5,248건(83.5%)이 증가했다.

또, ISO14000 획득건수는 작년말 현재 309건으로 1년 새 129건(71.7%)이 증가했다.

ISO9000은 기업의 제품생산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공정 등에 대한 국제적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이를 획득하는 기업은 품질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연도별 ISO9000 획득건수는 지난 '94년 102건을 시작으로 '95년 373건, '96년 931건, '97년 1,874건, '98년 3,005건, 지난해 5,248건 등으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ISO14000 획득은 기존의 품질경영체제를 환경 측면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기업의 제품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해 원료조달, 가공, 생산, 폐기, 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해 환경영향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ISO14000 획득건수는 지난 '96년 55건을 시작으로 '97년 67건, '98년 58건, 지난해 129건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 한해를 빼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산자부는 이 같이 ISO인증 획득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KS표시허가 심사시 공장심사 생략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 우대 등 각종 유인시책과 최근 대외 거래조건으로 ISO 획득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지방 中企 육성자금, 1조2500억 지원 시작

▲ 2000년도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문의처

(단위 : 억원)

시·도 별	지원 규모	지 원 조 건			신 청 시 기	문 의 처 (전화번호)
		한도	금리(%)	기 간		
서울	1,300	11	7.5	8(3년거치)	1.28~자금소진시	서울산업진흥재단 6283-1011~8
부산	716	11	8.25	"	3. 2~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51-888-3101
대구	907	11	8.25	"	3.15~자금소진시	중소기업과 053-429-2517
인천	560	11	8.25	"	2.16~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32-440-2895
광주	645	11	8.25	"	2. 1~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62-606-3252
대전	160	11	8.25	"	3.20~3.29(1차)	대전중기센터 042-864-4502
울산	150	11	8.25	"	3. 2~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52-229-3138
경기	1,540	10	8.05	"	3. 2~자금소진시	경기신용보증재단 0331-257-6451
강원	1,046	11	8.25	"	3. 6~자금소진시	중소기업지원과 0361-251-3318
충북	400	11	8.25	"	4. 1~4.10 7.1~7.10	기업지원과 0431-220-3237~8
충남	900	11	8.25	"	3.20~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42-220-3222
전북	793	11	7.5	"	년4회 3.21~3.31(1차)	산업정책과 0652-280-3223
전남	823	11	8.25	"	년4회 3.10~3.20(1차)	중소기업과 062-226-1942
경북	413	11	8.25	"	3.22~자금소진시	기업지원과 053-950-3243
경남	2,000	11	8.25	"	3. 2~자금소진시	중소기업지원과 0551-279-3262~3
제주	186	11	8.25	"	3.15~자금소진시	경제정책과 064-740-1673
계	12,539					

구조조정, 입지지원,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온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운용된다. 중기청은 이 자금을 지자체가 기업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2,500여억원을 조성, 3월부터 지원한

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1조1,612억원과 시장재개발 자금 927억원 등 총 1조2,539억원이다. 사업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경우 8억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8.25% 이내에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의

지방중기청과 시도가 위탁한 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시도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거래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중기청 소기업과 02-503-7925>

▲ 지원항목별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동화,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시설개체,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및 입주금, 점포시설개선 등 유통업구조개선 ▷ 시장재개발지원=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

해외에 무역축진단 50회 파견

올해 중소기업 무역축진단 해외파견 횟수가 50회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금년에 파견될 무역축진단은 박람회(전시회) 28회, 시장개척단 20회, 투자축진단 2회 등이다. 이는 지난해 박람회 16회, 시장개척단 11회, 투자축진단 4회 등 31회에 비해 19회가 늘어난 것이다. 무역축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도 '98년 320개, '99년 391개에서 금년에는 700여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무역축진단에는 정부재정에서 참여비용이 지원

된다. 특히 박람회(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가 지원되고, 시장개척단 및 투자축진단은 장소임차료·통역료·바이어 섭외비·광고비 등 현지 상담에 소요되는 공통경비가 지원된다.

중기청이 파견하는 무역축진단은 전문업종단체인 조합·협회 등을 주관단체로해 참여업체를 모집하게 된다. 무역축진단은 '98년 4천만달러, '99년 5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올렸다.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범

중소기업청은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일제히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재단도 중앙보증기관(신보·기

보)과 동일한 법적지위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을 계기로 설립된 조합들이 일제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되면서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기청은 각 지역신보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8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 각 지역신보가 지역형편에 따라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기본재산(평균 1천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와 지방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차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지방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보가 중앙중심의 신용

보증제도 운영과 금융기관의 낮은 신뢰도 때문에 소외되어 왔으나 이번에 근거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면서 세제혜택 등 기존의 중앙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과 동일한 법적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는 보증공급의 확대와 함께 지역의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유통의 원활화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올 정부시설공사 계획 확정

조달청은 신규발주계약 가운데 전기공사 135건 1,330억원을 비롯, 15조4,886억원 규모의 올해 정부시설공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신규발주계약 규모는 731건 9조5,475억원이며 장기(2차 이후) 계약은 1,061건 5조9,411억원이다. 올해 신규발주계약분종 공사별로는 토목공사 2,119건

7조3,851억원, 전기공사 135건 1,330억원, 통신공사 88건 534억원 등이다.

발주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국가기관이 407건 7조2,829억원,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94건 1조3,389억원, 정부투자기관 등 기타기관이 230건 9,257억원 등이다.

구 분	2000년도			1999년도		
	신 규	장기2차 이후계약	계	신 규	장기2차 이후계약	계
국 가 기 관	72,829	49,836	122,664	77,398	30,809	108,207
건 설 교 통 부	41,963	35,040	77,003	55,654	16,824	72,478
철 도 청	19,344	6,650	25,994	7,304	5,426	12,730
해 양 수 산 부	7,097	3,713	10,810	10,069	2,621	12,690
기 타	4,425	4,432	8,587	4,371	5,938	10,309
자 치 단 체	13,389	6,633	20,022	13,884	8,135	22,019
투 자 기 관 등	9,257	2,943	12,200	9,189	1,123	10,312
합 계	95,475	59,411	154,886	100,471	40,067	140,538

조달청은 또 경기활성화와 고용증진을 위해 15조4,886억원 가운데 68.5%인 10조6,03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인데, 1/4분기중에는 주로 장기(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2/4분기부터는

신규발주공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건설경기회복 및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전기공사협회, 인터넷·전용전산망 구축 협정 조인식 가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입찰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인터넷과 전용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교환하기 위한 입찰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장과 김병일 조달청장은 대전 정부청사 8층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전기공사 적격심사자료 및 정부공사 입찰자료를 인터넷 및 전용전산망으로 상호 활용하기 위한 '전기공사적격심사자료 인터넷·전용전산망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어 6층 조달청 계약과에 설치된 인터넷 전산망시스템실에서 김창준 협회장과 김병일 청장은 전기공사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등을 직접 출력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협정조인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조달청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전기공사업체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등의 자료를 인터넷과 전용전산망으로 조달청에 제공한다.

또 조달청은 적격심사평가방법등 공사입찰에 관한 노하우를 전기공사협회에 공급한다.

이에따라 전기공사협회 회원사들은 입찰관련서

류의 제출 간소화등으로 입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요기관에 입찰당일 낙찰자 통보가 가능해 종전보다 10일 이상 걸리던 행정소요일수가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준 회장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전기공사업계도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조달청과의 전기공사적격심사자료의 인터넷 및 전용전산망 조인식은 전기공사협회 1만1천여 회원과 200만 가족의 가장 보람스러운 날로 기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협회장은 "협회 기술경영연구소를 발판으로 신기술개발과 안전시공공법개발에 앞장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청장은 "그동안 약 20여만개 업체들이 입찰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면서 입찰비용과 제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본청은 물론 각 지방 조달청에서도 적격심사자료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 정부입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선진 계약행정을 실현시킬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이하 보증 간이심사만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대상기업 및 기술우대 소액 및 간이심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4월 1일부터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정부나 유관기관의 공공펀드에서 자본참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기술우대보증을 서준다고 발표했다. 기술우대보증은 기술력 평가항목을 위주로 심사해 재무상황이 다소 나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해당기업에 대해 2억원이하 금액은 소액심사만으로, 10억원이하 금액은 기술우대간이심사만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부분보증 및 수출입관련

보증도 3억원 이하 금액은 소액심사만으로, 12억원 이하 금액은 간이심사만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올해 초 11조1천억원의 보증 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5조4천4백억원을 기술우대보증으로 지원키로 하는 한편, 연말 예정보증잔액 12조원 중 7조2천억원을 기술우대보증 잔액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난해 구성비 51.2%를 6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서울 02)789-9304, Fax : 02)789-9252,

부산 051)460-2323, Fax : 051)464-7681

www.kibo.co.kr

